인문논총 제78권 제2호 (2021.5.31), pp. 205~235
[DOI] https://doi.org/10.17326/jhsnu.78.2.202105.205

청대의 남서방(南書房)과 사신화가(詞臣畵家)들*

장 진 성**

[초 록]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2-1722)는 수시로 학식이 높은 학자들을 곁에 두고 공부하고자 1677년에 남서방(南書房)을 설치하였다. 남서방한림(南書房翰林)들은 강희제에게 경사(經史)를 강해(講解)하고 시정(時政)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황제의 조령(詔令)과 유지(諭旨)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서적 편찬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남서방한림들은 강희제와 함께 시문(詩文)에 대해 토론하고 고동서화(古董書畵)를 감상하였다. 이들의 본래 임무는 강희제의 학술 자문 역할이었지만 실제로 남서방한림들은 황제의 '기요비서'(機要祕書)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1729년 전후에 설립된 군기처(軍機處)가 최고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 — 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주제어: 강희제(康熙帝), 남서방(南書房), 남서방한림(南書房翰林), 군기처(軍機處), 건륭제(乾隆帝), 사신화가(詞臣畵家)
Emperor Kangxi, Southern Study, Officials at the Southern Study, Grand Council, Emperor Qianlong, Scholar-Official Painters at the Qianlong Court

의 정무(政務) 기관이 되면서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3-1735)의 치세 기간에 남서방의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6-1795) 시대에 군기처가 확고하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자 남서방한림들의 정무적 역할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서방한림들 중 일부는 관료이자 화가로 활동했는데 이들이 바로 사신화가(詞臣畵家)들이다. 사신화가들은 건륭제를 위해 다양한 그림을 그렸으며 황실에 수장(收藏)되어 있는 서화(書畵)들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석거보급초편』(石渠寶笈初編, 1745)을 위시해 고동서화 관련 서적의 편찬 및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건륭제 시대의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I. 강희제와 남서방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2-1722)는 1677년 10월 20일에 건청문(乾淸門) 근처에 있었던 그의 옛 독서처(讀書處)에 남서방(南書房)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황제로 즉위한 후 무근전(懋勤殿)을 서방(書房)으로 삼았다. 1677년에 설치된 남서방은 무근전의 남쪽에 위치했으며 남재(南齋)로도 불렸다. 강희제가 남서방을 설치한 근본 이유는 일강(日講)에도 불구하고 경사(經史)에 대한 본인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1] 황제를 위한 일강 제도는 1655년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4-1661) 때부터 시작되었다. 경연(經筵)은 1657년에 처음 열려 제도화되었다. 1661년에 순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하자 현엽(玄燁, 1654-1722)이 8세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했는데 이 사람이 강희제

1) 常建华(2011),「康熙朝的翰林轮值南书房」,『紫禁城』2011年 第7期, pp. 22-24; 孟昭信(1998),『康熙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pp. 70-73; 朱金甫(1990),「论康熙时期的南书房」,『故宫博物院院刊』1990年 第2期, pp. 27-38. 중국에서 이루어진 남서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李娜(2017),「清代南书房研究30年」,『中国史研究动态』2017年 第5期, pp. 27-32 참조.

이다. 강희제가 너무 어려서 권력은 오보이(鼇拜, 1669년 사망) 등 네 명의 섭정들이 장악했다. 강희제는 1669년 최고 실권자였던 오보이를 제거하고 황제 친정체제를 수립하였다. 일강은 167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일강은 일강관(日講官)의 강의를 황제가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었으며 매일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1673년 3월에 강희제는 매일 일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기존과 달리 동지(冬至), 하지(夏至)에도 쉬지 않고 일강을 지속했다.[2)]

그러나 1673년에 일어난 삼번(三藩)의 난이 8년간의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강희제의 일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할 때 협조했던 오삼계(吳三桂, 1612-1678), 상가희(尙可喜, 1604-1676), 경중명(耿仲明, ?-1649)은 그 공을 인정받아 양자강(揚子江) 이남의 운남(雲南), 광동(廣東), 복건(福建) 지역을 분배받아 현실적으로 독립 세력인 세 개의 번부(藩部), 즉 '삼번'(三藩)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삼번이 일으킨 대규모 내란인 삼번의 난은 청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한창 전쟁의 와중에 있었지만 강희제는 1674년 10월부터 다시 일강을 시작했으며 황제가 수동적으로 강의를 경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강관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일강의 형식을 바꾸었다. 지식에 대한 욕구와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강희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일강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수시로 학식이 높은 학자들을 곁에 두고 공부하고자 남서방을 설치하였다. 그는 "불시에 불러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不時召見顧問] 신하들인 재내공봉(在內供奉)들이 필요했다. 강희제는 1677년 11월 14일에 대학사(大學士)들에게 남서방 설치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루 중 아무 때나 책과 글씨를 보고 싶을 때 주위를 둘러보아도 근시(近侍)들 중에는 '박학선서자'(博學善書者)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과 강론(講論)에 참여하여

2) Lawrence D. Kessler (1976),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37-142.

응대해 줄 인물도 전무했다고 토로하였다.[3)]

그는 자신과 함께 공부하며 토론에 응해주고 자신에게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근신(近臣)이 필요했다. 강희제는 장영(張英, 1637-1708)과 고사기(高士奇, 1645-1704)를 남서방한림(南書房翰林)으로 임명하였다. 남서방한림은 남서방행주(南書房行走) 또는 남서방시종(南書房侍從)으로도 불렸다.[4)] 아울러 강희제는 여두납(勵杜納, 1628-1703)도 남서방에 소속시켰다. 그는 이들에게 황성(皇城) 내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 장영은 안휘성(安徽省) 동성(桐城) 출신의 학자로 후일 문화전대학사(文華殿大學士) 겸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했다. 그의 둘째 아들인 장정옥(張廷玉, 1672-1755)은 군기대신(軍機大臣)으로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3-1735) 시대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한인 관료였다.[5)] 고사기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서화 수장가였으며 뛰어난 서예가였다. 그는 제생(諸生) 출신으로 박학했으며 시서(詩書)에 능해 강희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총신(寵臣)이었다. 그는 1681년과 1683년에 강희제의 동순(東巡)과 서순(西巡)에 참여한 후 『호종동순일록』(扈從東巡日錄, 1682)과 『호종서순일록』(扈從西巡日錄, 1683)을 남겼다. 한편 고사기는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6-1795)가 역대 그림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한 4개의 그림, 즉 '사미'(四美) 중 하나였던 전(傳) 이공린(李公麟) 필(筆) <소상와유도권>(瀟湘臥遊圖卷, 토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등 수많은 명작을 소유했던 서화 수장가였

3) 王思治, 馮爾康 主編(2006), 『清史事典④: 康熙事典』, 台北: 遠流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p. 132.

4) 남서방한림은 '남서방공봉'(南書房供奉), '내정공봉'(內廷供奉), '내정한림'(內廷翰林), '남재제신'(南齋諸臣)으로도 불렸다. 자세한 사항은 祁美琴(2016), 「从清代"内廷行走"看朝臣的"近侍化"倾向」, 『清史研究』 2016年 第2期, pp. 3-4 참조.

5) 장영과 장정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rthur W. Hummel (1943), ed.,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1644-191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 pp. 54-56, 64-65 참조.

다. <소상와유도권>은 현재 12세기에 활동한 서성(舒城) 이씨(李氏)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6] 여두납 또한 서예로 저명했다. 1663년에 강희제는 글씨를 잘 쓰는 문사(文士)를 선발했는데 이 시험에서 여두납은 1등을 하였다. 강희제는 서예가로서 여두납의 능력을 인정하여 1680년에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 및 일강기거주관(日講起居注官)으로 임명하였다.[7]

강희제가 남서방을 설치한 이유가 가까운 곳에 '박학선서자'(博學善書者)를 두고 경사를 토론하고 서예를 익히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그는 학문은 장영으로부터, 글씨 쓰는 법은 고사기와 여두납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판단된다. 남서방에는 운영 편제(編制)가 따로 없었으며 인원수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강희제의 필요에 따라 인원도 수시로 정해졌다. 장영의 『남서방기주』(南書房記注,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 소장)와 사신행(查愼行, 1650-1727)의 『사타산남재일기』(查他山南齋日記, 상해도서관(上海圖書館) 소장)를 통해 강희제 시기 남서방한림들의 입직(入直)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남서방기주』(南書房記注)는 장영이 강희제의 부름에 응해 자신과 고사기, 여두납이 남서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현재 1677년 12월~1680년 11월까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여두납의 활동이 언급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장영과 고사기가 강희제와 함께 『서경』(書經), 『맹자』(孟子), 『대학』(大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여러 경학서 및 역사서를 읽고 토론한 내용이 『남

6) 고사기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 1, pp. 413-415; 徐晨光(2017), 「康熙名臣高士奇的宦海生涯奇观」, 『领导科学』 2017年 第4期, pp. 50-52. 17세기를 대표하는 서화수장가로서 고사기의 면모에 대해서는 Amy Shumei Huang (2018), "Artful Networking: The Collecting Practices of Gao Shiqi (1645-1704)", *National Palace Museum Bulletin* 50, pp. 59-95 참조. 건륭제의 '사미'(四美)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段勇(2008), 『乾隆「四美」与「三友」』, 北京: 紫禁城出版社, pp. 8-87 참조.

7) 여두납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 1, p. 491 참조.

서방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 장영과 고사기는 강희제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했으며 학술,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함께 토론하였다. 사신행은 청나라의 저명한 시인으로 1702년에 강희제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 거인(擧人) 신분으로 남서방한림이 되었다. 그는 1703년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이후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 자격으로 남서방에 입치(立値)하였다. 『사타산남재일기』는 사신행이 남서방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일기이다. 이 일기는 1704년 1월 1일부터 1704년 12월 29일까지의 기록이다.[9] 『남서방기주』는 남서방이 설립된 후 남서방한림이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 즉 남서방의 초기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반면 『사타산남재일기』는 강희제 치세(治世)의 후반기에 남서방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다. 『남서방기주』를 살펴보면 남서방한림들은 매일 진각(辰刻, 오전 7시)에 출근하고 유각(酉刻,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진입유출'(辰入酉出)을 따랐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명(黎明)에 남서방에 입직한 한림들은 달이 뜬 후에야 퇴근하기도 했다. 강희제가 수시로 또는 불시(不時)에 한림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은 늘 대기 상태로 근무했다. 강희제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음식, 술, 과일을 남서방한림들에게 내렸다.[10]

장영, 고사기, 여두납을 이어 1678년에 진정경(陳廷敬, 1638-1712), 섭

8) 『남서방기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中国第一历史档案馆(2001), 「康熙十六年十二月《南书房记注》」, 『歷史檔案』 2001年 第1期, pp. 24-27; 中国第一历史档案馆(1997), 「康熙十九年南书房记注(三)」, 『歷史檔案』 1997年 第1期, pp. 3-8 참조.

9) 『사타산남재일기』에 대해서는 陈玉兰(2017), 「康熙朝《查他山南斋日记》史实考证二则」, 『歷史檔案』 2017年 第1期, pp. 135-137; 陈玉兰(2017), 「查慎行《南斋日记》考证二则」, 『文献』 2017年 第2期, pp. 165-169 참조.

10) 남서방한림들의 입직 생활에 대해서는 许文继, 李娜(2014), 「南书房行走笔下的入直生活 — 新发现的几部南书房行走自撰史料」, 『歷史檔案』 2014年 第2期, pp. 103-108 참조.

방애(葉方藹, 1629-1682),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이 남서방한림으로 임명되었다.[11] 1679~1688년에는 장옥서(張玉書, 1642-1711), 손재풍(孫在豊, 1644-1689), 주이존(朱彝尊, 1629-1709), 서건학(徐乾學, 1631-1694), 왕홍서(王鴻緖, 1645-1723), 진원룡(陳元龍, 1652-1736), 대재(戴梓, 1649-1726) 등이 남서방한림으로 활동했다.[12] 여두납, 왕사정, 진정경 3인만 북인(北人, 화북(華北) 출신의 문인)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남인(南人, 강남(江南) 출신의 문인)이었다.[13] 남서방에서 남인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강희제의 강남 문인 우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강희제는 1679년에 『명사』(明史) 편찬을 위해 특별히 실시한 과거 시험인 박학홍유과(博學鴻儒科, 또는 박학홍사과(博學宏辭科, 博學鴻詞科))를 통해 대거 남인들을 등용하였다. 이 시험은 강남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반청(反淸)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의 고육책이었다. 박학홍유과를 통해 조정에 진출한 강남 출신의 문인들은 남당(南黨)을 결성하였으며 남당의 수장(首長)은 서건학이었다.[14] 남당과 만주족 및 화북 출신의 관료들이 결성한 북당(北黨)은 강희제 말기에 황태자(皇太子) 인령(胤礽, 1674-1725)의 폐립(廢立) 문제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15]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외조카였

11) 진정경, 섭방애, 왕사정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1944), 1, pp. 97, 101, 162, 182-185, 310-312, 435; 2, pp. 831-833, 902 참조.

12) 장옥서, 손재풍, 주이존, 서건학, 왕홍서, 진원룡, 대재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1944), 1, pp. 65-66; 2, pp. 822-823 참조.

13) 孟昭信(1998), p. 72.

14) Bin Wang (2017), “The Boxue Hongci 博學宏詞 Examinations, Literary Anthologies by Emperors and the Literary Circles during the Kangxi and Qianlong Periods”, *Ming Qing Yanjiu* 20, pp. 94-107; Hellmut Wilhelm (1951), “The Po-Hsüeh Hung-ju Examination of 1679”,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1(1), pp. 60-66 참조.

15) 강희제 말기의 붕당 문제에 대해서는 林乾(2013), 『康熙惩抑朋党与清代极权政治』,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참조.

던 서건학은 곤산(昆山) 출신으로 동생들인 서병의(徐秉義, 1633-1711), 서원문(徐元文, 1634-1691)과 함께 '곤산삼서'(昆山三徐)로 불렸다. 그와 서병의는 과거 시험에 탐화(探花, 3등)로, 서원문은 장원(壯元)으로 합격하였다. 서씨 삼형제는 총재관(總裁官)으로 『명사』(明史) 편수(編修)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서건학과 서병의는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편찬의 책임자들이었다.[16]

당쟁이 격화되자 강희제는 1694년 남서방한림의 수를 늘려 자신의 근신으로 삼아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는 남서방한림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한림원(翰林院)·첨사부(詹事府)·국자감(國子監)의 관원 중 4명을 매일 남서방에 입직(入直)하도록 하는 '윤반시직'(輪班侍直) 제도를 마련하였다.[17] 1708년에 윤반시직 제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해에 강희제는 황태자인 인렁을 폐위시켰다. 인렁이 폐위되자 황태자 자리를 놓고 황자(皇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 정파 사이의 치열한 당쟁이 일어났다. 1714년에 매일 4명의 관원이 남서방에 입직해 근무하는 윤반시직 제도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1722년에 폐지되었다. 강희제는 윤반시직 제도를 시행하면서 남서방한림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였다. 그는 자신이 출제한 시험 문제로 고시(考試)를 시행해 이들의 능력을 관찰하고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인물들에게 어서묵적(御書墨迹) 또는 어서석각(御書石刻)을 선물로 하사하였다. 남서방에 근무하는 윤반시직 관원들은 남서방한림들처럼 기본적으로 '진입유출'의 출퇴근 시간을 따랐지만 야근(夜勤)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서방한림들과 마찬가지로 서적을 편사(編寫)하고 문고(文稿)의 교열을 담당하였으며 황제와 함께 시사(詩詞)를 짓고

16) '곤산삼서'에 대해서는 Lynn A. Struve (1982), "The Hsü Brothers and Semiofficial Patronage of Scholars in The K'ang-hsi Perio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2(1), pp. 231-266 참조.

17) 윤반시직 제도에 대해서는 常建华(2011), pp. 22-23 참조.

서화를 같이 감상하고 감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강희제 말기의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강희제와 윤반시직 관원 사이의 사적인 친밀 관계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18]

2. 남서방한림들의 직무

남서방한림들의 직무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사(經史)를 강희제에게 강해(講解)하는 것이었다. 남서방한림들은 강희제가 부르면 바로 알현한 후 시독(侍讀), 시강(侍講)으로 그에게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다. 남서방 설치 당시 강희제는 주자(朱子(朱熹), 1130-1200)의『사서집주』(四書集註)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자치통감』(資治通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19] 장영은 사서(四書), 오경(五經) 및 역사서를 강희제에게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둘째는 시정(時政)에 대한 자문이었다. 남서방은 내각(內閣), 육부(六部)와 같은 공식적인 외조(外朝) 조직이 아닌 내정(內廷)에 속한 근시(近侍) 기구였다. 남서방한림은 본래 참정(參政)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내정행주'(內廷行走)의 일원이었으며 황제의 근신으로 여러 정치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희제는 1684년을 시작으로 재위 기간 동안 6번의 남순(南巡)을 실시했다. 남순은 황하의 범람을 점검하고 대운하를 통한 조곡(漕穀)의 원활한 운송을 감독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었지만 실상은 강남 지역의 반청(反淸) 양상에 대한 점검이었다. 강희제에게 강남 지역의 안정화는 가장 중요한 시무(時務) 중 하나였다. 남서방에 소속된 남인 출신의 한림들은 강희제의 대(對) 강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했던 매

18) 许文继, 李娜(2014), 앞의 논문, pp. 104-105.

19) Lawrence D. Kessler (1976), 앞의 책, pp. 143-144.

우 중요한 정치 고문(顧問)들(political advisers)이었다. 남서방한림들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 모습인 민은(民隱)을 강희제에게 보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사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남서방한림들은 강희제의 남순, 동순, 서순에 참여해 황제를 호종하였다. 셋째 남서방한림들은 황제의 조령(詔令)과 유지(諭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장영은 국가적 기밀사무(機密事務)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강희제를 위하여 특별한 황제의 조치인 특반유지(特頒諭旨) 작성을 도맡았다. 고사기 또한 강희제를 위해 비밀 유지[密諭]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서건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서방한림들은 서적 편찬을 주도하였다. 남서방한림들은『대청회전』(大淸會典),『고문연감』(古文淵鑑) 등을 편찬하는 실무를 맡았다. 다섯째 이들은 강희제와 함께 시부(詩賦)를 창화(唱和)하고 고동서화(古董書畵)를 감상하였으며 역대 법서(法書)를 임모하였다. 특히 글씨를 잘 쓰지 못했던 강희제는 고사기, 여두납, 심전(沈筌, 1624-1684)으로부터 서법(書法)을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중 남서방한림들이 담당했던 음시작화(吟詩作畵) 및 황제의 고동서화 감상에 관한 자문 역할은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6-1795) 시대에 사신화가(詞臣畵家)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20]

한편 남서방한림들은 강희제의 단순한 정책 자문역에서 벗어나 그가 추구했던 내정 중심의 정치에 '기요비서'(機要祕書)로 활동하였다.[21] 내정행주로서 남서방한림은 '내정공봉' 또는 '내정시종'(內廷侍從)으로도 불렸다. 남서방은 강희제 직속의 사적 기구로 역할을 담당

20) 孟昭信(1998), pp. 72-76; 朱金甫(1990).

21) 李乔(2007),「南书房行走: 皇帝的"机要秘书"」,『中国党政干部论坛』2007年 第6期, pp. 63-64. 강희제 시대에 정무(政務)는 내각(內閣)이 담당했으며 군사(軍事) 업무는 의정왕대신회의(議政王大臣會議)가 관장했기 때문에 남서방한림들은 정사(政事)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朱金甫(1990), pp. 34-35 참조.

했으며 정치적 기밀 사항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남서방은 '금밀지지'(禁密之地) 또는 '기밀중지'(機密重地)로 여겨졌다. 남서방한림들과 강희제는 매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친근지신'(親近之臣)인 남서방한림의 선발은 전적으로 강희제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1713년에 강희제는 문학으로 저명했지만 평민 신분[白衣]이었던 방포(方苞, 1668-1749)를 전격적으로 남서방한림으로 발탁하였다. 1682년에 강희제는 남서방한림들에게 자금성(紫禁城)에 말을 타고 들어와도 좋다는 '금중기마'(禁中騎馬)의 영예를 베풀어줄 정도로 이들을 특별하게 예우하였다.[22] 강희제에게 남서방한림들은 기밀 정치를 통해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였다. 강희제 시대에 내정은 만주족, 몽골족 출신의 근신들이 핵심이었으며 외조는 한인 관료들로 채워졌다. 남서방한림들은 한인 관료로서 만몽(滿蒙) 대신들과 함께 강희제를 지근(至近)에서 보필함으로써 청 조정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23]

강희제가 황권(皇權) 중심의 내정 정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주요 정책은 제왕(諸王), 버이러(貝勒 Beile) 등 황친(皇親)과 만주 대신(大臣)들이 주도하는 의정왕대신회의(議政王大臣會議, 1792년에 폐지됨)에서 결정되었다. 강희제는 의정왕대신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아울러 지방의 반청 운동을 감시하고 지방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첩보 정치인 주접(奏摺) 또는 밀접(密摺) 정치를 시작하였다.[24] 강희제가 언제부터 비밀 주접을 활용해 황친 및 중앙 관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지방 행정을 점검했는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주

22) 祁美琴(2016), p. 4.

23) Evelyn S. Rawski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2.

24) 청대 주접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ilas H. L. Wu (1970), *Communication and Imperial Control in China: Evolution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1693-173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접 정치는 16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희제는 만주족의 전통적인 주종관계, 즉 주인과 가노(家奴)인 보이(包衣, Booi, bond-servant) 사이의 관계에 착안하여 남서방한림 및 일부 지방관들에게 밀지(密旨)를 내린 후 비밀 답신을 받아 중앙과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25] 소주직조(蘇州織造)였던 이후(李煦, 1655-1729)와 그의 매부(妹夫)로 강녕직조(江寧織造)로 근무했던 조인(曺寅, 1658-1712)은 1690년대에 지속적으로 강희제에게 밀접을 보내 강남 지역의 민정(民情)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지방에 파견된 관료들이었지만 강희제의 보이, 즉 노재(奴才)로 활동했다.[26] 한편 남서방한림 중 밀접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은 왕홍서였다. 왕홍서는 강희제가 조정에 심어둔 충복(忠僕)으로 주로 1700년대에 황친 및 내각의 대학사 등 중앙 관료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그에게 밀접을 통해 낱낱이 보고하였다.[27]

3. 옹정제, 건륭제 시대의 남서방

옹정제 시대에 남서방의 권한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1729년을 전후해 준가르족(the Dzunghars) 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 군사 및 행정 기구였던 군기처(軍機處)가 최고의 정무 기관이 되면서 남서방의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28] 옹정제는 군기처를 중심으로 주접 제도를 확

25) 內田直文(2005),「清代康熙年間における奏摺政治の展開」,『九州大学東洋史論集』33, pp. 140-173.

26) 보이로서 조인과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Jonathan D. Spence (1966),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27) Jonathan D. Spence (1974),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New York: Random House, Inc., pp. 126-127.

28) 옹정제 시기에 남서방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축소, 약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하였다. 군기처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만주족 및 한인 군기장경(軍機章京)들은 옹정제의 밀지를 지방관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주접을 비밀리에 옹정제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강희제 시대에 주접 제도는 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황제가 일부 관원들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옹정제가 즉위하면서 지방의 총독(總督)과 순무(巡撫) 이하의 지방관에게도 밀접을 황제에게 직접 올리도록 하여 그는 중앙 및 지방 관료들에 대한 감시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남서방한림이 맡았던 대부분의 기능은 군기대신(軍機大臣)과 군기장령이 대신하게 되었다.[29] 건륭제 시대에 군기처가 확고하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자 남서방한림들의 정무적 역할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서방한림들은 주로 서적 편찬을 담당하였다. 한편 건륭제 시기의 남서방한림들 중에는 관보(觀保, ?-1776) 등 만주족 기인(旗人)들도 있어 흥미롭다. 남서방한림들 중 일부는 건륭제와 함께 시문을 짓고 고동서화를 감상하면서 문예고문(文藝顧問, cultural and artistic advisers)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문예적 역할과 관련하여 남서방한림들 중 주목되는 인물들은 건륭제의 고동서화 수집과 정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화가(詞臣畵家)들이다.[30]

건륭제는 즉위 후 오랫동안 부재했던 궁정 화원(畵院)을 복구하였다.

杜志明,「论南书房与康雍时期的政治」,『湖北第二师范学院学报』 2011年 第7期, pp. 73-89 참조. 군기처가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729년 설립설이 학계의 주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군기처 설립 연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宋美玲(1999),「清代 軍機處에 대한 研究 動向」,『中國史研究』 6, pp. 235-241 참조.

29) 군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eatrice S. Bartlett (1991),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조.

30) 건륭제 시기에 활동한 남서방한림들에 대해서는 馮明珠(2002),「玉皇案吏王者師 — 論介乾隆皇帝的文化顧問」, 馮明珠 主編,『乾隆皇帝的文化大業』,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p. 241-258 참조.

건륭제 시대에 청나라는 정복 전쟁을 통해 한족(漢族),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 오족(五族)을 포괄하는 세계제국인 대청(大淸)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대청제국은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 종교를 포괄하는 거대제국으로 성장하였는데, 건륭제가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민족과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배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대청제국은 크게 '만주'(滿洲), '직성'(直省, 중국 본토), '번부'(藩部, 외몽골, 신강, 티베트)의 삼분(三分)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건륭제는 이러한 구성 원리에 부응하여 대청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주상(君主像)을 개발하고자 했다. 건륭제는 궁정회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적 천자(天子)로서의 이미지, 만주족, 몽골족 등을 지배하는 대칸(大汗)으로서의 이미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제(諸) 민족을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법륜왕(法輪王 Cakravartin)으로서의 이미지 등 자신의 다양한 정치적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그는 궁정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 선전하였다. 따라서 건륭제 시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궁정회화는 이러한 건륭제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건륭제의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건륭제의 화원에 대한 통제와 개입은 자신의 대청제국 지배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31]

31) 건륭제의 다양한 황제 이미지 창출 노력에 대해서는 Harold L. Kahn (1971), *Monarchy in the Emperor's Eyes: Image and Reality in the Ch'ien-lung Re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Zhang Hongxing (2002), ed., *The Qianlong Emperor: Treasures from the Forbidden City*, Edinburgh: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Publishing Limited; Deborah Sommer (2004), "The Art and Politics of Painting Qianlong at Chengde",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c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pp. 136-145; 何傳馨 主編(2013),『十全乾隆: 淸高宗的藝術品味』,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참조.

1736년에 건륭제는 궁정 작방(作房)인 양심전(養心殿) 조판처(造辦處) 내에 화원처(畵院處)를 설치하여 궁정회화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심전 조판처는 황실과 궁정을 위해 자명종을 위시한 각종 기물(器物)과 가구 등을 제작했던 기구이다. 화원처는 건륭제 초기에 궁정회화 제작을 주도했지만 1762년 법랑처(琺瑯處)에 귀속되었다. 이후 궁정회화 제작에 있어 화원처를 대신한 것은 여의관(如意館)이었다. 1736년에 건륭제는 화원처와 함께 원명원(圓明園) 동문 부근에 여의관을 설치하여 주요 궁정회화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화원처와 여의관으로 구성된 건륭 화원은 송대(宋代) 이후 사라졌던 화원이 공식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건륭 화원에 소속된 화가들은 화화인(畵畵人)으로 불렸으며 1등, 2등, 3등 화화인의 구별이 있었다. 1등 화화인은 월급으로 11량(兩) (전은량(錢糧銀) 8량, 공비은(公費銀) 3량), 2등 화화인은 9량(전은량 6량, 공비은 3량), 3등 화화인은 7량(전은량 4량, 공비은 3량)을 받았다. 화화인 이외에 화원에는 도제(徒弟)들인 화화백당아(畵畵栢唐阿)와 학수백당아(學手栢唐阿)가 있었다.[32] 한편 화원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쥬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중국명 낭세녕(郎世寧), 1688-1766) 등 예수회 선교사 출신의 화가들이 건륭제를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 카스틸리오네의 경우 관등 3품(品)에 해당되는 '봉신원경'(奉宸苑卿)의 직책을 제수받을 정도로 이들은 '예외적인 궁정화가'들로 건륭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33]

32) 청대 화원 제도에 대해서는 She Ch'eng (1985), "The Painting Academy of the Qialong Period: A Study in Relation to the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Collection", *The Elegant Brush: 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ed. by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Phoenix: Phoenix Art Museum, pp. 318-342; Yang Boda (1991), "The Development of the Ch'ien-lung Painting Academy",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by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 333-356; 楊伯達(1993),『清代院畵』, 北京: 紫禁城出版社, pp. 7-83 참조.

33) 楊伯達(1993), 위의 책, pp. 43-47 참조.

4. 사신화가들과 건륭제

이러한 화원 소속의 화가들 외에 관료로서 그림에 뛰어난 화가 집단인 '사신화가' 또는 '한림화가'(翰林畫家)들이 있었다.[34] 남서방한림이자 사신화가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동방달(董邦達, 1699-1769), 동고(董誥, 1740-1818), 전유성(錢維城, 1720-1773), 장조(張照, 1691-1745), 장부(蔣溥, 1708-1761), 장약애(張若靄, 1713-1746)이다. 이들은 화원 소속의 궁정화가들과는 달리 건륭제의 측근으로 황제의 명에 따라 전통적인 문인(文人) 스타일의 산수화와 정교한 화조화를 제작하였으며 건륭제의 서화 감식(鑑識)에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방달과 동고는 부자(父子)였다. 동방달과 동고는 '이동'(二董)으로 불렸으며 옹정제, 건륭제, 가경제(嘉慶帝, 재위 1796-1820) 3대에 걸쳐 최고위 관료이자 사신화가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1799년에 동고는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임명되어 후일 도광제(道光帝, 재위 1821-1850)가 되는 황태자를 가르쳤다.[35] 동방달과 동고는 건륭제와 가경제의 칙명(勅命)을 받고 그림을 그려 바쳤다. 동방달이 그린 <임마원소상팔경도>(臨馬遠瀟湘八景圖, 그림 1)는 그가 건륭제의 명을 받고 제작한 어람용(御覽用) 작품들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그림에는 "한림원시독학사인 신 동방달은 칙명을 받들어 마원소상팔경(馬遠瀟湘八景)을 삼가 그렸습니다"(翰林院侍讀學士臣董邦達奉勅恭摹馬遠瀟湘八景)라는 그의 관지(款識)가 적혀있다.[36] 전유성은 1745년에 치러진 과거에서

34) 사신화가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1985), 앞의 책, pp. 69-105; 聶崇正(1996),『宮廷藝術的光輝: 清代宮廷繪畫論叢』, 臺北: 東大圖書公司, pp. 37-42 참조.

35) 동방달과 동고에 대해서는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1985), pp. 84-85, 94 참조.

36) 동방달, 동고 부자의 어람용 회화 제작 및 이들과 건륭제 사이의 긴밀한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公望美术馆 编(2017),『君聖臣賢: 乾隆皇帝与董家父子书画特展』, 北京: 故宮出版社 참조.

[그림 1] 동방달(董邦達, 1699–1769), 〈임마원소상팔경도〉(臨馬遠瀟湘八景圖), 1746년, 부분, 종이에 채색, 23.4 × 526.0 cm, 개인 소장[Wong Nan-p'ing(王南屏), Hong Kong].

장원(壯元)을 한 당대 최고의 수재였다. 장조는 한림화가이자 건륭제 시기 '오사신'(五詞臣)의 한 사람으로 건륭제가 수장한 서화(書畵)들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석거보급초편』(石渠寶笈初編, 1745)의 편찬,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37]

장부는 옹정제 시절 최고위 한인 관료였던 장정석(蔣廷錫, 1669-1732)의 아들이다(그림 2).[38] 장정석은 강희제 시기에 화훼화(花卉畵)로 저명한 화가였으며 강희제의 신임으로 고위 관료로 성장하였다. 특히 장정석은 군기처가 설립되었을 때 장정옥, 이친왕(怡親王) 인상(胤祥, 1686-1730)과 함께 군기처 초대 삼대신(三大臣)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된 권신(權臣)이었다.[39] 한편 장약애는 옹정제 시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군기처 대신이었던 장정옥(張廷玉, 1672-1755)의 아들이다.[40] 장정옥은 강희제 시대에 최고의 각신(閣臣)이자 초대 남서방한림이었던 장영의 아들로 옹정 말~건륭 초에 만주족 관료인 오르타이(Ortai 鄂爾泰, 1680-1745)와 함께 '오각신'(五閣臣) 중 한 사람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오르타이와 함께 건륭제의 황위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옹정제의 최측근 신하였다. 장영, 장정옥, 장약애로 이어지는 장씨 삼대(三代)는 남서방한림으로 활동했으며 한인 관료로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였다.[41] 사신화가들 외에도 남서방한림들 중 심덕잠(沈德潛, 1673-1769), 양시정(梁詩正, 1697-1762), 왕유돈(汪由敦, 1692-1758) 등은 역대 서화와 궁정화가들이 제작한 그림들에 황제의 칙명을 받고 수많은 제발(題跋)을 썼다. 이들은 건륭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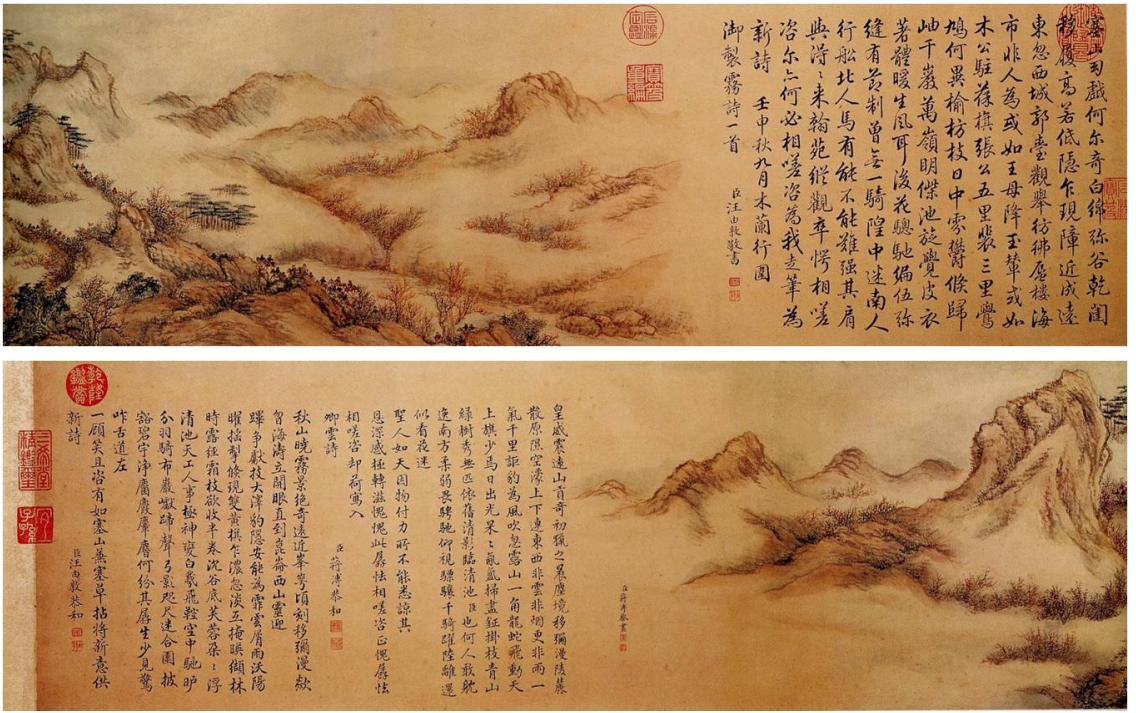
37) 전유성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 1, p. 158;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1985), p. 78 참조.

38) 장부에 대해서는 聶崇正(1996), p. 41 참조.

39) 장정석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 1, pp. 142-143 참조.

40) 장약애에 대해서는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1985), p. 69 참조.

41) 장정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rthur W. Hummel (1943), 1, pp. 54-56 참조.



[그림 2] 장부(蔣溥, 1708–1761), 〈화어제새산영무시의도〉(畵御製塞山詠霧詩意圖), 1752년, 종이에 채색, 24.0 x 152.0 cm,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

문예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문화 고문들이었다.[42] 이와 같이 건륭제 시기에 활동한 사신화가들은 화가이자 관료로서 예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건륭제의 유교적 천자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이었다. 중국 문인의 경우 고동서화의 감상 및 수집은 문인 생활의 필수 사항이었다.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고동서화 컬렉션을 형성한 인물이다(그림 3). 현재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골동품과 서화는 거의 대부분 건륭제가 소장했던 것들이다. 아울러 북경(北京)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요녕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등 중국의 주요박물관 소장품의 상당수가 건륭제 컬렉션에서 나온 것이다.[43] 건륭제는 단순히 골동품과 서화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한 고동서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황실 소장의 도석화(道釋畵)를 집대성한 『비전주림』(秘殿珠林, 1744) 및 『비전주림속편』(石渠寶笈續編, 1793), 서화 카탈로그(catalogue)인 『석거보급초편』(1745)과 『석거보급속편(續編)』(1793), 동경(銅鏡) 등 고동기(古銅器)를 정리한 『서청고감』(西淸古鑑, 1755)과 『서청속감』(西淸續鑑, 1793), 황실 소장 역대 도자기에 대한 그림과 정보를 수록한 『도자보책』(陶瓷譜册), 명품 벼루를 도해(圖解)한 『흠정서청연보』(欽定西淸硯譜, 1778)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건륭제는 황실 소장의 고동서화, 도자기, 문방구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정보집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44]

---

42) 馮明珠(2002), pp. 244-248.

43) 건륭제의 고동서화 컬렉션에 대해서는 Nicole T. C. Chiang (2019), *Emperor Qianlong's Hidden Treasures: Reconsidering the Collection of the Qing Imperial Household*,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참조.

44) 馮明珠 主編(2002), 앞의 책, pp. 110-111, 114-115, 119-120; 何傳馨(2013), 앞의 책. pp. 90, 94-95, 104.

[그림 3] 〈건륭황제시일시이도〉(乾隆皇帝是一是二圖), 종이에 채색, 76.5 x 147.2cm, 북경(北京)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석거보급』의 경우 강희제 시대에 편찬된 역대 화론(畵論), 화사(畵史)들을 종합한 『패문재서화보』(佩文齋書畵譜, 1708)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황실 소장 서화 카탈로그이다. 『석거보급』에는 개별 그림의 치수, 재질뿐 아니라 그림 표면에 있는 인장(印章), 제발(題跋) 등이 모두 채록되어 있다. 『석거보급초편』의 경우 인장과 제발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정보 채록에 있어 불완전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석거보급속편』에는 그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전주림』과 『석거보급초편』은 사신화가였던 장조가 편찬, 간행을 총괄하였는데 특히 『석거보급초편』 편찬에는 동방달, 장약애, 양시정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비전주림속편』과 『석거보급속편』 편찬은 남서방한림인 왕걸(王杰, 1725-1805)이 담당했다. 『서청고감』과 『서청속감』 편찬은 양시정과 왕걸이 맡았다. 『흠정서청연보』는 남서방한림이었던 우민중(于敏中, 1714-1779)이 건륭제의 칙령을 받아 편찬을 주도하였다.[45]

고동서화 수집과정을 통해 건륭제의 감식(鑑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나갔다. 고동서화의 진위를 판별하는 감식 능력은 문인들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최고급 지식의 습득을 의미했다.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역대 서화에 가장 많은 제발과 수장인(收藏印)을 남겼다. 이것은 단순히 건륭제의 광적인 서화 수집과 감상의 모습이 아닌, 최고의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데 건륭제는 초기에는 고동서화의 진위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해 서화 감식에 있어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1745년과 1746

45) 『석거보급삼편』(石渠寶笈三編)은 가경제(嘉慶帝, 재위 1796-1820) 시기인 1816년에 편찬, 간행되었다. 『석거보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in-cheung Lovell (1973), *Annotated Bibliography of Chinese Painting Catalogues and Related Texts,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73, pp. 51-57; 故宮博物院 编(2015), 『石渠寶笈特展』, 北京: 故宮博物院 참조. 왕걸과 우민중에 대해서는 Arthur W. Hummel (1943-1944), 1, p. 137; 2, pp. 942-944 참조.

[그림 4] 전(傳) 황공망(黃公望, 1268–1354),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자명권(子明卷), 32.9 x 589.2 cm,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

[그림 5] 황공망,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무용사권(無用師卷), 1350년, 종이에 수묵, 33.0 × 636.9 cm,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

년에 건륭제는 황공망(黃公望, 1268-1354)의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 '자명권'(子明卷,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과 '무용사권'(無用師卷,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을 수집하였다(그림 4, 5). 이 중 '무용사권'이 진본(眞本)이고 '자명권'이 임본(臨本)이다. 양시정 등의 신하들과 진위 논변을 벌였지만 건륭제는 임본인 '자명권'을 진품으로 인정하였다.[46] 그러나 건륭제는 이후 고동서화 중 명품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식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장조, 동방달 등 사신화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건륭제는 평생 43,800수 이상의 시(詩)를 지었다. 그는 중국의 어느 문인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글과 시를 지어 역사상 최고의 문인으로 스스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건륭제는 매일 시를 쓰고 글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호문(好文)의 군주, 더 나아가 역대 한족 출신의 어느 황제도 이루지 못했던 문화 군주로서 자신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 했다. 실제로 건륭제만큼 많은 글과 시를 남긴 황제는 없었다. 그의 시문을 엮은 『어제문집』(御製文集)은 총 282권(卷)에 해당될 정도로 방대하다.[47] 그는 문화 군주이자 이상적인 유교적 천자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남서방 한림들과 이 중 고동서화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 고문들이었던 사신화가들은 건륭제의 이러한 개인적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남서방 한림들과 사신화가들은 무모할 정도로 거대한 문화적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건륭제를 위하여 때때로 글, 시, 그림을 대신 짓고 그려주기도 하였다.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絕)을 이루고자 했던 건륭제는 부

46) <부춘산거도>의 진위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楼秋华(2010),『富春山居图真伪』, 杭州: 浙江大学出版社; 徐邦达(1984),「黄公望《富春山居图》真伪本考辨」,『故宫博物院院刊』 1984年 第2期, pp. 27-38 참조.

47) Mark C. Elliott (2009),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New York: Pearson Education Ltd., p. 111 참조.

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건륭제는 중국의 어떤 황제도 이루지 못한 빛나는 문화적, 예술적 업적을 남겼다. 그 업적 뒤에는 남서방 소속의 한림들과 사신화가들이 있었다.[48]

48) 건륭제와 신하들 사이에 이루어진 서화 창작 및 감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故宮博物院 编(2019),『幾暇怡情: 乾隆朝君臣书画特展』, 北京: 故宮博物院 참조.

참고문헌

【논 저】

宋美玲(1999),「清代 軍機處에 대한 研究 動向」,『中國史研究』6.

内田直文(2005),「清代康熙年間における奏摺政治の展開」,『九州大学東洋史論集』33.

故宫博物院 编(2019),『幾暇怡情: 乾隆朝君臣书画特展』, 北京: 故宫博物院.

故宫博物院 编(2015),『石渠寶笈特展』, 北京: 故宫博物院.

公望美术馆 编(2017),『君聖臣賢: 乾隆皇帝与董家父子书画特展』, 北京: 故宫出版社.

祁美琴(2016),「从清代"内廷行走"看朝臣的"近侍化"倾向」,『清史研究』2016年 第2期.

段勇(2008),『乾隆「四美」与「三友」』, 北京: 紫禁城出版社.

杜志明(2011),「论南书房与康雍时期的政治」,『湖北第二师范学院学报』2011年 第7期.

楼秋华(2010),『富春山居图真伪』, 杭州: 浙江大学出版社.

林乾(2013),『康熙惩抑朋党与清代极权政治』,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孟昭信(1998),『康熙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常建华(2011),「康熙朝的翰林轮值南书房」,『紫禁城』2011年 第7期.

徐邦达(1984),「黄公望《富春山居图》真伪本考辨」,『故宫博物院院刊』1984年 第2期.

徐晨光(2017),「康熙名臣高士奇的宦海生涯奇观」,『领导科学』2017年 第4期.

聶崇正(1996),『宫廷藝術的光輝: 清代宫廷繪畫論叢』, 臺北: 東大圖書公司.

楊伯達(1993),『清代院畫』, 北京: 紫禁城出版社.

王思治, 馮爾康 主編(2006),『清史事典④: 康熙事典』, 台北: 遠流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李乔(2007),「南书房行走: 皇帝的"机要秘书"」,『中国党政干部论坛』2007年第6期.

李娜(2017),「清代南书房研究30年」,『中国史研究动态』2017年 第5期.

朱金甫(1990),「论康熙时期的南书房」,『故宫博物院院刊』1990年 第2期.

中国第一历史档案馆(2001),「康熙十六年十二月《南书房记注》」,『歷史檔案』 2001年 第1期.

中国第一历史档案馆(1997),「康熙十九年南书房记注(三)」,『歷史檔案』 1997年 第1期.

陈玉兰(2017),「康熙朝《查他山南斋日记》史实考证二则」,『歷史檔案』 2017年 第1期.

陈玉兰(2017),「查慎行《南斋日记》考证二则」,『文献』 2017年 第2期.

许文继, 李娜(2014),「南书房行走笔下的入直生活 — 新发现的几部南书房行走自撰史料」,『歷史檔案』 2014年 第2期.

馮明珠(2002),「玉皇案吏王者師 — 論介乾隆皇帝的文化顧問」, 馮明珠 主編, 『乾隆皇帝的文化大業』,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Bartlett, Beatrice S. (1991),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iang, Nicole T. C. (2019), *Emperor Qianlong's Hidden Treasures: Reconsidering the Collection of the Qing Imperial Household*,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Elliott, Mark C. (2009),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New York: Pearson Education Ltd.

Huang, Amy Shumei Huang (2018), "Artful Networking: The Collecting Practices of Gao Shiqi (1645-1704)", *National Palace Museum Bulletin* 50.

Hummel, Arthur W. (ed. 1943-1944),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1644-191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Kahn, Harold L. (1971), *Monarchy in the Emperor's Eyes: Image and Reality in the Ch'ien-lung Re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Kessler, Lawrence D. Kessler (1976),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vell, Hin-cheung (1973), *Annotated Bibliography of Chinese Painting Catalogues and Related Texts*,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Rawski, Evelyn S. Rawski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e, Ch'eng (1985), "The Painting Academy of the Qialong Period: A Study in Relation to the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Collection", In *The Elegant Brush: 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ed. by Ju-hsi Chou and Claudia Brown, 318-342. Phoenix: Phoenix Art Museum.

Sommer, Deborah (2004), "The Art and Politics of Painting Qianlong at Chengde",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c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136-14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Spence, Jonathan D. (1974),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New York: Random House, Inc.

Spence, Jonathan D. (1966),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truve, Lynn A. (1982), "The Hsü Brothers and Semiofficial Patronage of Scholars in The K'ang-hsi Perio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2(1).

Wang, Bin (2017), "The Boxue Hongci 博學宏詞 Examinations, Literary Anthologies by Emperors and the Literary Circles during the Kangxi and Qianlong Periods", *Ming Qing Yanjiu* 20.

Wilhelm, Hellmut Wilhelm (1951), "The *Po-Hsüeh Hung-ju* Examination of 1679",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1.

Wu, Silas H. L. (1970), *Communication and Imperial Control in China: Evolution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1693-173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Yang, Boda (1991), "The Development of the Ch'ien-lung Painting Academy",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by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333-356,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Zhang, Hongxing (2002), ed. *The Qianlong Emperor: Treasures from the Forbidden City*, Edinburgh: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Publishing Limited.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1일
심사 완료일: 2021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The Southern Study of the Qing Period and Scholar-Official Painters at the Qianlong Court

Chang, Chin-Sung*

The emperor Kangxi (r. 1662-1722) created the Southern Study or Imperial Study (*Nanshufang*) so that he could have near him, on call at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Chinese scholar-officials who could teach him calligraphy, help him draft edicts, or compile numerous books published by the court. The officials at the Southern Study also conversed with the emperor on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They were artistic and cultural advisers for the emperor, composing poems and writing prose for or with him and appreciating and evaluating antiques, paintings, and calligraphy together. They even worked as political advisers for the emperor. After the Grand Council (*Junjichu*) was established around 1729, the political role of the Southern Study came to be radically diminished. During the Qianlong period (1736-1795), the role of the Southern Study was limited to the areas of art and culture. Among the members of the Southern Study, the scholar-official painters at the Qianlong cour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rt and culture. They created numerous paintings for Qianlong, catalogued the bronzes, jades, mirrors, ce-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ramics, paintings, and calligraphy in the Qing imperial collection, and appreciated and authenticated works of art with the emperor. They were at the center of the artistic and cultural efflorescence of the Qianlong era.